

업자가 시방서 작성·중국산이 국산 둔갑 등 신설학교 11곳 납품비리 확인

광주시의회, 최종 보고
‘광주시의회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는 지난 9월14일부터 한 달 보름 가량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지난달 31일 ‘납품비리’ 형태를 공개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에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신설학교 24개교 중 수사가 진행 중인 2개교를 제외한 22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11개 학교와 10개 납품업체에서 납품비리를 확인했다.
조사위는 또 ▲신설학교 전편 회계 감사와 기자재 전수 실태 조사 ▲납품 참여 배제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요구사항 작성 특정업체와 계약= 조사위는 A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는

기자재·비품 시방서 작성에 도움을 준 특정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져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산이 국산 ‘둔갑’=B초등학교 등 7개교는 시방서에 수입산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보다 약 40%가량 싼 중국산 책상과 탁자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일선 학교에 중국산 제품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시방서와 다른 제품 구입=B초교의 경우 보건실 침대(1인용) 가격이 32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시방서와는 달리 10만원대 저가의 기성품이었고 K초교의 경우는 시방서상 강재로 돼 있는 칸막이가 20%가량 싼 목재로 돼 있는 등 10개 학교가 시방서와 다른 제품을 구입했다.
◇동일 제품 가격 편차 극심=I중

교는 고급 하이팩 의자를 개당 3만4천원에 구입했으나, M초교는 같은 제품을 1만9천300원에 구입하는 등 동일 제품 가격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Y초교는 267만원짜리 교장실 책상을 구입하는 등 교장실 비품비율만 1천830만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의 1년 도서구입비는 1천300만원이었다.
◇신설학교 예산배정 문제점=신설학교의 경우 개교 3~5년이 지나야 완성학급이 되는데도, 시 교육청은 개교 때 완성학급 기준으로 기자재와 비품을 구입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조사위는 시 교육청이 2004년 24개 신설학교에 대한 비품·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53억3천600만원을 썼는데, 현 시점 기준으로 11억원이 사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이연 안과를 찾은 어린이들이 근시 여부를 체크하는 시력검사를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어린이 근시 5년새 41% 증가

컴퓨터 게임 등 영향
대한안과학회는 1970년대에 8~15%에 그쳤던 어린이(초등학생) 근시(近視) 유병률(有病率)이 1980년대 23%, 1990년대 38%, 2000년대 46.2%로 30년 새 3배가량 증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광주지역도 근시 학생이 2000년 1천398명에서 2005년 1천968명으로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교육청이 36곳의 초·중·고등학교 7천2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전남대병원 안과 박상우교수는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이 높아지는 원인은 유전적인 면보다 책·컴퓨터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며 ‘원거리(遠距離)’보다 ‘근거리(近距離)’ 근거리 활동 시간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크다”며 “어린이가 원거리로 있는 사물을 흐릿하게 식별하는 경우, 검진·교정 등에 따라 시력 상태가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과 전문가들은 또 “학습시간 증가와 컴퓨터 게임으로 눈의 조절 근육이 수축돼 ‘가성근시(假性近視)’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절마비제 점안 굴절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성근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시력 교정을 하면 어지럼증·두통 등 부작용과 근시의 급속한 진행을 부를 수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2008학년 서울대 정시모집 논술 영향력 45% 달할 듯

200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논술 점수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현재보다 크게 높아진 4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대가 제출한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 입시안의 요소별 실질반영률 자료를 분석, 이를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입한 결과가 같은 수치를 얻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점수는 100점 만점에 기본점 96.7점이었으며, 가변점수는 5.7점이었다. 논술은 25점 만점에 기본점수 23점, 가변점수 2점으로 나타났다.
가변점수의 총합 10.7점을 100%로 환산하면 내신은 53.3%, 논술 28.0%, 면접 18.7%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을 포함했을 때의 실질반영률은 내신이 2.28%, 논술이 1.2%, 면접이 0.8%로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8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반영 비율인 학생부 50%, 논술 30%, 면접 20%에 따라 동일한 기본점수를 배정할 경우 각 전형 요소의 실질반영률은 학생부가 2.85%, 논술이 3.6%, 면접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변점수 100으로 환산하면 논술은 44.7%, 학생부 35.4%, 면접은 19.9%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육설 파문’ 운영료교육장
정직 1개월 징계**
지난달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설 파문을 일으킨 윤영철(여·55) 광주서부교육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 특별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윤 교육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정직 1개월은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앞서 윤 교육장이 국정감사에서 “XX의 XX”라는 육설을 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교육부에 중징계(정직·해임·파면)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조간간 인사명령을 통해 윤 교육장과 광주시교육청에 징계 의견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소방관들이 직접 만든 영상음악
‘소방관의 기도’ 인기 폭발**

현직 소방관들이 직접 만든 영상음악 ‘소방관의 기도’(Firemen's Prayer·사진)가 네티즌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소방관의 기도’는 울산 중부소방서 소방관들로 구성된 5인조 혼성 그룹사운드 ‘피닉스(Phoenix)’가 제작한 영상물.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이를 감싸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할 수 있게 하소서’라는 가사에, 화재 진압과 구조 현장에서 생명을 잃은 소방관 등의 사진을 넣어 만든 5분9초 짜리 영상음악이다.
‘소방관의 기도’는 지난달 25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처음 등장한 이후 조회 수가 4만여 회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앞다투어 이 동영상에 다운받아 블로그와 미니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지난해 5월 결성된 ‘피닉스’의 멤버는 울산 중부소방서 김태용(43) 소방장·이은일(39) 소방교·최병훈(36) 소방교·유재학(32) 소방사·조미제(29·여) 소방사 등이다.
/임주형기자 jhljm@kwangju.co.kr

짙은 안개 ‘유의’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1월 1일 (음 9월 11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맑음	8~20℃
대전	구름맑음	9~20℃
부산	구름맑음	14~21℃
대구	구름맑음	10~20℃
서울	구름맑음	5~21℃
제주	구름맑음	5~20℃
안동	구름맑음	5~20℃
청주	구름맑음	5~20℃
충주	구름맑음	8~22℃
강릉	구름맑음	5~21℃
고령	구름맑음	7~22℃
진주	구름맑음	6~21℃
통영	구름맑음	8~20℃
거제	구름맑음	5~20℃
제주	구름맑음	7~19℃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동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10:08 썰물 < 03:37
목포 밀물 < 22:49 썰물 < 15:46
여수 밀물 < 05:33 썰물 < 11:27
 18:05 썰물 < --:--

▲해돋이 06:53 ▲해질 17:38 ▲달돋이 15:04 ▲달질 01:32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날 씨						
최저/최고	8/20	8/18	9/16	8/15	4/12	4/14

영유아 이유식, 사카자키균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6개월 이하 영유아용 이유식 전체 제품 12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에서 4개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100g당 0.36~2.3마리 정도 검출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카자키균이 나온 제품은 매일유업의 ‘베이비웰(Babywell) 소이 1’, 일동후디스의 ‘후디스 아기밀 순유기농 1’, 파스퇴르유업의 ‘누생 유기농장 1’, 남양유업의 ‘남양스텝 명품유기농 1’ 등이다.
하지만 식품위생 전문가들은 섭식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타서 찬물로 식혀 먹으면 미생물이 완전히 사멸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 오세욱 박사는 “사카자키균은 100g당 10만 마리 수준은 되어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면적결렬 영아나 28일 미만 영아, 2.5kg 미만 저체중아 등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한번 먹이고 남은 조제분유와 이유식은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버리도록 하며, 젓병·젓꼭지·손과 스푼 등도 깨끗이 씻어 살균처리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FTA 반대 영암서 울췌 야적시위

영암군 미암·시종·신북면 등 3개면 농민회는 지난달 31일 영암군청에서 쌀값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벼 야적투쟁에 돌입했다. 벼 야적시위는 울췌 처음이다.
농민회 회원 100여 명이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트럭을 동원, 벼 700여 가마를 군청으로 싣고 와 군과 영암군의회 현관 앞에 야적해 놔다. 특히 성년 농민들은 포대를 군청 현관 앞에 내던져 일부가 터지면서 벼가 쏟아지는 등 한 때 이수라장이 됐다.
농민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으로 인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은 사라지고, 한미 FTA라는 거대한 폭풍에서 비탈린 불안하고 초조한 가을을 맞고 있다’면서 ‘쌀값 보장, 추곡수매제 부활, 한미 FTA 저지 등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김한기기자 hnkim@

“쾌적한 환경으로 건강을...”

KASIT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자동환기시스템 ‘코코’ 출시**

살아있는 환경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동환기시스템의 장점

- **환기효과** : 냉기, 난기, 습기, 먼지, 악취, 냄새, PC방 등 다양한 환경에 적합하며, 24시간 자동 환기
- **효율성** :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며, 저비용 가격, 간편한 시공, 100% 환기효과

● **광주지역 영업처** : 광명환기시스템, 리빙테크시스템, 에스오비

구분	종류	특징
주택용	주택용	주택용 환기장치로, 온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하여 환기
	상업용	상업용 환기장치로, 온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하여 환기
사무실용	사무실용	사무실용 환기장치로, 온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하여 환기
	상업용	상업용 환기장치로, 온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하여 환기

문의 : **에스오비** 한국과학기술원

월드시스템 ☎02-603-2752

광주지역 유일한 상설 할인매장

50% ~ 40% 할인

OLZEN

최대 50% 할인, 40% 할인

전화 : 02-671-6102